

# 근대조명 – 한성전기회사의 설립과 전기사업의 확장 ④



우리나라 근대적 의미의 전기사업은 한성전기회사(漢城電氣會社, 이하 '한성전기')의 설립과 궤를 같이한다. 한성전기 설립 이전에 경복궁 및 창덕궁 등에 전기도입이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의 전기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 궁 안에 설치된 전등소(발전소)는 소규모의 자기전등설비(自家電燈設備) 수준에 머물렀으며, 한성전기 설립 이후에야 대규모의 중앙 발전소와 배전설비를 사용, 전차를 가동하고 일반가정과 사무실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었다. 전기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한성전기 설립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설비용량이 커지고 규모 또한 크게 확대되었으며,

전기사업의 영역이 새롭게 개척되고 전기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한성전기는 대한제국의 산업진흥정책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898년(광무 2) 고종황제의 황실 단독 출자를 바탕으로 친미 개화파 관료가 중심이 되어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설립하였지만, 애초 산업진흥의 중심기구로 성장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당시 정치세력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성전기는 한미합자(韓美合資)의 한미전기회사(韓美電氣會社)로 개편되고, 다시 한미전기회사는 일제의 한일합병의 기운이 극에 달했던 1909년에 일본인 회사인 일한와사전기(日韓瓦斯電氣)가 되었으며, 1915년에는 다시 경성전기(京城電氣)로 그 명칭 바뀌게 되었다.

이 무렵 조선은 개항(開港)에 따라 세계적 자본주의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고 왕조체제의 해체가 가속되는 가운데 계층적 이해, 정치적 자세, 사상적 기반을 달리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새로운 근대국가를 설립하고자 노력했던 시기이다. 한성전기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설립되었으며, 대한제국이 갑오정권에 반대하는 개화파 관료와 황실 측근 세력의 결합으로 성립된 것과 같이 대한제국의 산업진흥정책 또한 친미 개화파와 황실 측근 세력의 두 세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다. 물론 두 세력의 성격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당시 개화파 관료들은 군주권의 제약을 통한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의 수립을 이상으로 여기며 갑오개혁 이래 외자(外資)를 포함한 민간 중심의 상공업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반면에, 이용익(李容翊)과 같은 황실 측근 세력은 황제의 무한한 군권을 바탕으로 절대군주제(絕對君主制)를 근대화 방안으로 생각하여 황실 산하 궁내부(宮內府) 주도로 각종 근대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자신이 직접 관련 기구를 통해 관리하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이용익은 친미개화파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한성전기의 경영확장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한편,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전등을 민간에게 확대 공급하고 서울 시내에 전차를 부설해 전력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 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경복궁의 전등가설 이후 프레이저(Everett Frazar, 厚禮節)가 서울 시내의 전기시설 설치를 꾸준히 권유해 왔었고, 1891년에는 알렌(Horace N. Allen, 安連)을 통해 전기철도 건설을 타진했으나 청의 원세개(袁世凱)의


사진 ① 한성전기회사 사옥과 그 주변(1900년대), 전기박물관 소장 자료  
 사진 ② 1901년 10월 준공된 한성전기회사 사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31쪽  
 사진 ③ 한성전기회사 초대사장 이재연(李采淵, 우로부터 두 번째),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사(상)》, 1989, 101쪽  
 사진 ④ 대한제국으로부터 전차 및 전등설비의 건설과 운영을 청부받은 콜브란(H. Collbran, 高佛安),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사(상)》, 1989, 1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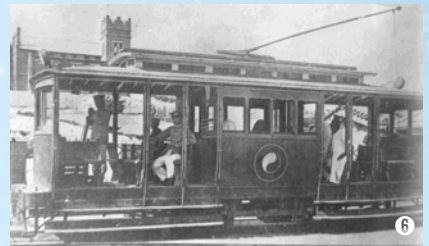
간섭으로 실패한 적이 있었으며, 1893년에도 당시 주미대리공사 이채연(李采淵)을 통해 미국무장관 그레삼과의 대담에서 자신이 전기철도 부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sup>1)</sup> 이러한 배경 속에서 1898년 1월 18일 민간인 이근배(李根培)와 김두승(金斗昇)이 한성부내(漢城府內)의 전차, 전등, 전화를 경영할 목적으로 농상공부에 한성전기회사의 설립을 청원하고 같은 해 1월 26일 정부에서 이를 인가하면서<sup>2)</sup> 대한 제국의 전력개발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성전기 초대사장으로서는 이채연(李采淵)이 취임하였다. 그는 일찍이 제중원(濟衆院) 주사(主事)를 거쳐 주미공사관에서 번역관·서기관·대리공사를 한 적이 있으며, 정동 구락부(貞洞俱樂部, 한말 서울 정동에 있던 주한 외교관과 조선 고관들의 사교·친목 단체)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면서 미국(특히 알렌 공사)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고종황제의 신임도 두터웠던 사람이다. 당시에는 여러 민간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나서 이 방면의 경험도 풍부하였으며, 알렌을 통해 콜브란 측과 긴밀한 교섭을 거친 뒤에 사업 추진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된다.

한성전기 시장 취임 후 그는 먼저 서울시내 전차부설에 착수하고, 1898년 2월 1일에 미국인 콜브란(H. Collbran, 高佛安)과 남대문에서 종로를 거쳐 청량리에 이르는 구간의 전기철도를 계약하여 철도·전주·전선·전차·발전소·격납고·정비창 등 전차운행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를 갖추기로 하였다. 설계에서부터 자재 조달 및 설치, 시운전까지 책임지는 턴키방식(일괄수주계약)이었다.<sup>3)</sup> 이후 전차노선은 공사비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재정문제에 직면하면서 노선의 축소와 변경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한성전기는 1899년 4월 29일 콜브란과 18개조에 달하는 전기철도 운영계약을 체결 하였다. 향후 1년간(적어도 3개월 이상) 콜브란이 경영을 전담토록 했으며, 전기철도 운영과 유지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콜브란에게 철도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요금책정, 시간표, 종업원 고용 및 해고 등)을 위임했고, 그 대신 한성전기는 회사 재정에 대해 일부 통제를 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콜브란에게 경영권을 준 것은 재정문제 때문이었다. 결국 콜브란 측은 재정에 대한 부채를 빌미로 한성전기의 재산과 특허권을 저당하고 부채를 갚을 때까지 운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애초에 한성전기회사를 창립할 때 황실의 자본과 미국 차관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차관을 제공한 미국회사에 경영권을 주려고 했던 방안과 사실상 일치하는 셈이다.

한성전기는 명목상으로는 한국인 민간회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실회사였으며, 그 성격이 황실과 미국자본의 합자회사에 가까웠다. 알렌이 1900년 4월 14일 미 국무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서울의 전기철도는 “사실상 미국 기업의 소유”<sup>4)</sup>라고 과시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잘 드러나 있다. 



• 사진 및 자료

- 吳鎭錫, (1898~1904년 漢城電氣會社의 설립과 경영변동), 《동방학지》 제139집 별책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사(상)》, 1989
- 해링튼, 《開化期의 韓美關係》, 一潮閣, 1974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화보》, 1989
- 기타 전기박물관 소장 자료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⑤ 돈의문(서대문) 밖 전차선로 보수 작업(1900년대), 전기박물관 소장 자료  
 사진 ⑥ 상등칸과 하등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개통 당시의 전차(1899년), 전기박물관 소장 자료  
 사진 ⑦ 용산발전소(250kW×2 건설), 1903년 7월, 전기박물관 소장 자료  
 사진 ⑧ 동대문발전소 주변(1930년대), 전기박물관 소장 자료

1) 해링튼, 《開化期의 韓美關係》, 一潮閣, 1974, 158쪽  
 2)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100년사(상)》, 1989, 98쪽  
 3) 吳鎭錫, (1898~1904년 漢城電氣會社의 설립과 경영변동), 《동방학지》 제139집 별책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186쪽  
 4) Allen to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oul Electric Rail Road", 1900, 4.14, Despatch No. 241 Diplomatic(吳鎭錫, 앞의 글, 190쪽 재인용)